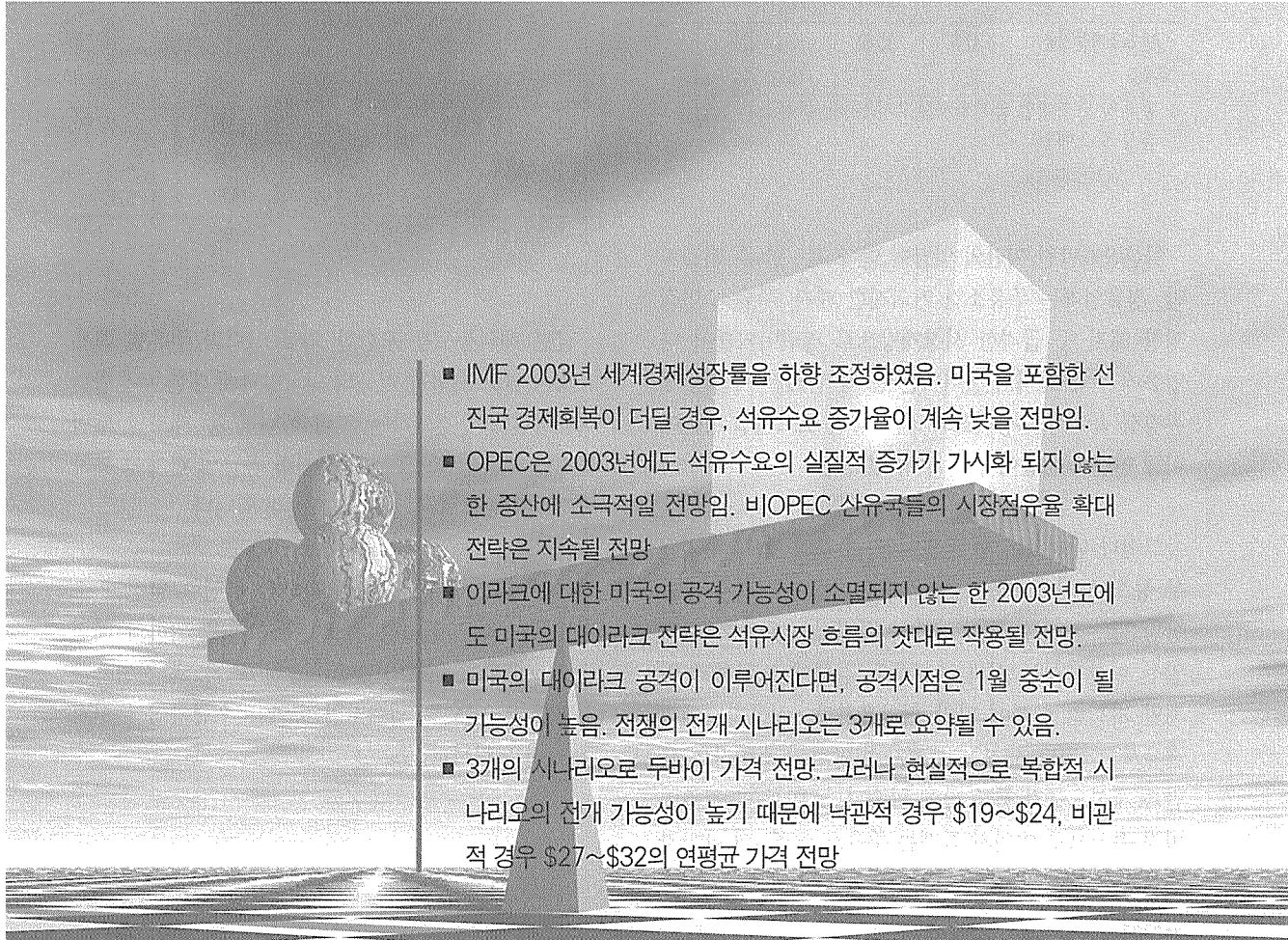


이 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
해외에너지시장동향(2002. 10. 30)에서 발췌·요약한 것이다
- 편집자 주 -

2003년 국제유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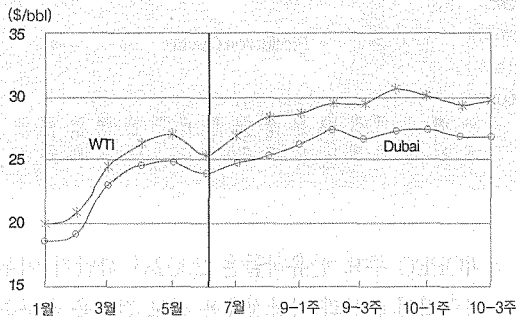
에너지경제연구원

- 
- IMF 2003년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였음.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경제회복이 더딜 경우, 석유수요 증가율이 계속 낮을 전망이다.
 - OPEC은 2003년에도 석유수요의 실질적 증가가 가시화 되지 않는 한 증산에 소극적일 전망이다. 비OPEC 산유국들의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은 지속될 전망이다
 -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소멸되지 않는 한 2003년도에도 미국의 대이라크 전략은 석유시장 흐름의 잣대로 작용될 전망이다.
 -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이 이루어진다면, 공격시점은 1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음. 전쟁의 전개 시나리오는 3개로 요약될 수 있음.
 - 3개의 시나리오로 두바이 가격 전망.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합적 시나리오의 전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관적 경우 \$19~\$24, 비관적 경우 \$27~\$32의 연평균 가격 전망

I. 2002년 석유시장 동향

- 연초 부시 대통령의 “악의 축” 발언 이후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대 테러전쟁 발발의 우려 때문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약 \$3 내외의 전쟁 프리미엄을 형성.
- 2/4분기 후반(5월 말 ~ 6월 하순) 유가는 잠시 약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동사태의 재악화와 OPEC의 산유량 동결, 재고 감소등으로 다시 강세를 이어감.
- 8월 말 체니 부통령의 이라크 선제공격 불가피 발언과 9월초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문제에 대한 회지도자 설득, 미·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에 대한 압박설이 확산되면서 9월 하순까지 국제유가는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 지속.
- 이라크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UN을 통한 해결 촉구, 이라크측의 UN 무기사찰 수용 발언, 부시 대통령의 전쟁 신중론 등으로 10월 이후 약보합세 유지

2002년 현물유가 추이



- 하반기 OECD 상업용 석유재고, 2001년보다 낮은 수준이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. (10월초 미국

상업용 원유 재고는 전년동기대비 약 3천만 배럴 감소)

- 세계경기 회복의 부진으로 석유수요 증가율이 낮은 추세를 기록함으로써 공급제약과 재고감소에도 불구하고 석유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고 있음.

II. 2003년 원유시장의 주요 변동요인들

1. 세계경제 성장률

- 국제통화기금(IMF)은 9월말에 2003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3.7%로 하향 조정하여 발표하였음. 이는 세계경제가 2002년도에 이어서 2003년도 낮은 수준의 완만한 회복기조를 유지해 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됨.
-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.5%로 전망, 특히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3.4%에서 2.6%로 대폭 낮춤으로써 내년에도 미국경제의 본격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. 일본과 EU의 성장률도 하향조정 되었음.

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

(단위: %)

	2001년(실적)	2002년	2003년
전세계	2.2	2.8	3.7
선진국	0.8	1.7	2.5
- 미국	0.3	2.2	2.6
- 일본	-0.3	0.5	1.1
- EU	1.5	0.9	2.3
아시아NICs	0.8	4.7	4.9
개도국	3.9	4.2	5.2

주) 2002년 9월 총회 발표자료

- 아시아신흥공업국의 경우 4.9%로 전망하였으나 기대보다 낮은 미국 경제성장으로 동 국가간의 수출과 성장에 제약요인 전망.
- 개도국은 약 5% 수준의 성장률 전망.
-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전망은 그에 따른 석유 수요 증가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.
- IEA, 2001년 이후 OECD 석유수요 연속 감소 추세(2001년 : 7만b/d, 2002년 : 13만b/d 예상)
- 세계 석유소비 증가율도 2001년과 2002년 각각 0.4%, 0.2%에 그침
- IEA는 최근 자료에서 2003년 석유수요를 +100만b/d, 1.4% 증가율로 전망하였으나 경제회복이 현재의 예상과 같이 부진할 경우, 기대만큼의 석유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.

2. 산유국 석유시장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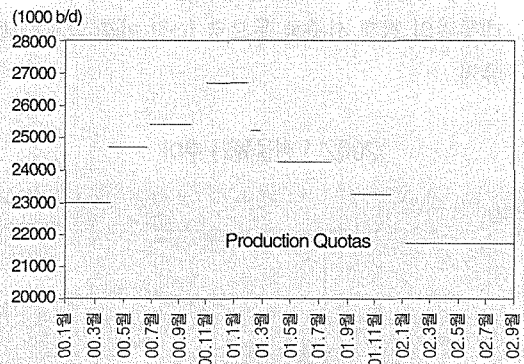
- OPEC은 2003년에 석유수요의 실질적인 증가가 가시화되지 않는 한 증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전망이다. 반면 추가감산의 가능성도 낮게 평가됨.
- 2002년 1월부터 '9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인 2,170만b/d의 목표산유량을 계속 유지해오고



있음.

- OPEC은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개최된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유가상승의 원인이 전적으로 전쟁프리미엄 때문이라며 현 산유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.
- 2003년에도 유가밴드 메카니즘(OPEC basket 기준 \$22~\$28)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겠지만 원유가격이 밴드 하한선 이하로 하락시 추가감산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.
- OPEC은 대 이라크 전쟁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발생되거나 원유가격이 유가밴드 메카니즘에 의한 증산요건을 충족할 경우, 증산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.
- 9월 총회에서 현재 목표산유량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9월과 10월 중 회원국의 초과생산에 대하여 묵인하는 입장

OPEC 10개국 산유량 및 쿼터 추이



-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은 2002년 하반기 이후 적극적인 증산과 시장점유율 확보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2003년에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.
- 러시아는 지속적 원유 증산과 새로운 판로(미국, 일본 등) 개척 추진

이라크 사태 전개에 대한 시나리오별 접근

I	이라크 전쟁, 단기 종료 이후 이라크 과도정부 조기 출범
II	이라크 전쟁, 주변국으로 확대되어 장기전으로 상황 악화
III	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 압박과 외교적 해결의 양면전략 구사

- ① 시나리오 I 은 미국 정부의 의도대로 대 이라크 전쟁이 진행되는 경우로 3개월 이내에 전쟁 상황이 조기 수습되고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이라크 과도정부의 출범을 가정한 것임.
- ② 시나리오 II 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의외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으로 확산되는 최악의 경우로 아랍권에 의한 석유 무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- ③ 시나리오 III 은 현재 상황의 연장 상태임. 미국이 서방진영과 아랍 주변국으로부터 이라크 공격에 대한 완전한 동의를 구하지 못함으로써 군사공격 전략을 포기하고 이라크에 대한 무력시위를 통한 압박을 계속하면서 UN을 통한 외교적 해결책을 시도하는 양면전략의 경우임.

- 2003년 석유시장에서 전쟁프리미엄 요인이 해소될 경우, 이후 일정기간 동안 유가하락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됨. 이 경우, OPEC은 비OPEC과 정책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.
 - OPEC은 회원국에 대한 엄격한 쿼터 준수 이외에 대규모 추가 감산의 가능성은 낮게 평가됨.
 - 원유가격이 배럴당 \$20미만으로 급락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, OPEC과 비OPEC 사이에 정책공조가 일정부분 이루어질 가능성은 존재함.

3. 미국의 대 이라크 전략

-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 가능성과 이후의 전개과정은 2003년 세계 석유시장의 등락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 인식되고 있음. 미국의 요구가 완전하게 수용되지 않는 한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.
 - 후세인 정권의 축출과 대량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에 대한 미국정부의 요구는 단호하고 즉각적인 반면 이라크의 전략은 UN 안보리 내 친이라크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의 무력공격을 저

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내적으로는 성전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양면작전을 전개하고 있음.

- 부시 대통령은 이미 의회로부터 이라크 공격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상황
- 미국의 공격은 중간선거 이후부터 2003년 1월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. 이는 과거 1990년· 걸프사태 발생 시기에 연합군의 공격시기가 1991년 1월 중순이었다는 사실에서 추론된 것임.
 - 미국은 공격 준비태세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격시점 이전까지 이라크에 대하여 군사·외교적 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UN 안보리 이사국과 아랍 주변국을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공격에 대비하여 명분 쌓기를 지속할 전망.
 - 미국 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공격없이 UN과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으로 대량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 등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대안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음.
 - 이라크 사태에 대한 미국의 공격 가능성과 이후의 사태 전개과정은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로 구성해 볼 수 있음.

Ⅲ. 2003년 국제원유 가격 전망

- 2003년 국제 원유시장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대 이라크 전략의 선택과 전개 방향에 따라서 여타 요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다. 따라서 세계 GDP 성장 전망과 산유국의 석유시장 전략을 감안하여, 이라크 사태에 따른 시나리오를 근거로 한 2003년 국제유가 전망은 아래와 같음.
- 시나리오 I 과 II의 경우,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 시기를 2003년 연초로 가정.

시나리오별 원유가격(두바이 원유 기준) 전망

(단위 : \$/bbl)

시나리오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연평균
I	27 - 30	23 - 25	17 - 20	19 - 21	21 - 23
II	29 - 31	34 - 36	30 - 33	27 - 29	30 - 33
III	26 - 28	24 - 26	23 - 25	25 - 27	24 - 26

- 시나리오 I : 전쟁의 영향으로 1/4분기 중 이라크 원유의 생산이 전면 중단되지만 전쟁 상황이 수습되는 하반기 이후에 원유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음. 두바이 유가는 전쟁기간 1~2개월 동안 배럴당 \$30 내외의 강세를 유지

하겠지만 전쟁이 종료되면서 곧바로 시장의 전쟁프리미엄이 해소되면서 가격안정과 석유수급이 정상화를 찾아갈 것임. 이라크 원유의 수출이 정상화되는 3/4분기 이후부터 원유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되어 배럴당 \$2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 연평균 가격은 \$21~\$23 수준.

- 시나리오 II에서는 대 이라크 전쟁 상황이 악화되면서 6개월 이상의 장기전으로 전개되고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산유국으로부터 원유공급이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. 원유시장은 단기적으로 최고 \$40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연중 \$30/bbl 대의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고유가로 인하여 세계경제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. 연평균 가격은 \$30~\$33 수준.
- 시나리오 III에서는 석유시장의 전쟁프리미엄이 그대로 유지되며 사태전개의 완급에 따라서 유가등락이 이어질 전망이다. 연평균 가격은 \$24~\$26 수준.

- ▶ 시나리오별 접근방식에 따라서 위와 같이 두바이 원유가격을 전망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복합적인 형태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. 따라서 2003년 석유시장은 낙관적인 경우 \$19~\$24, 비관적인 경우 \$27~\$32의 연평균 가격대를 형성할 전망이다. 📉

